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견인

### 전북도 동부권발전위원회 개최... 16개 사업 세부실행계획 심의·의결

전북도는 동부권 발전을 위해 내년 6개 신규 사업을 포함한 420억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역별 특화 분야를 확대, 발굴해 전북의 고른 발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전북도는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동부권 지역의 발전방안 모색과 2020년 동부권 시군 사업계획 심의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동부권발전사업 현황보고, 2020년도에 추진할 시·군 사업 세부실행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동부권 발전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업은 식품 분야 8개 사업, 관광 분야 8개 사업 등 총 16개이며 이들 사업에는 총 425억 원(도비 300억, 시군비 121억, 지방채 4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남원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 진안 마이산 관광단지 상징게이트 설치사업, 무주 부남 금강변 및 안성

철연지구 관광자원활성화 사업, 순창 쌀·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및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등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6개 사업을 위해 동부권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그동안 동부권 발전사업에 총 2,578억원을 지원, 42개 사업을 추진했다.

식품분야에서는 남원 허브,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임실 치즈 등을 특화하였고, 관광분야에서는 남원 광한투원, 진안 마이산, 순창 강천산 등 시군별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도는 현황보고에서 평가결과의 수용성 신뢰성 제고와 사업관리 강화의 필요에 따라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동부권 특별회계의 재원변화, 기한연장 등에 따라 동부권발전사업의 특화분야를 확대·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시군의 2020년 사업 세부실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최용범 행정부지사(위원장)는 "앞으로 동부권발전을 위해 특별회계 연장 및 확대와 연계한 특화발전 사업을 확대 발굴하여 동부권 지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시군에서는 2020년 동부권 발전사업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 등 사전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에 위촉된 제7기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실·국장 및 동부권 6개 시군 부단체장, 도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동부권 6개(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심의와 의결, 전문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개최한 동부권발전위원회(4월)에서는 2020년 추진예정인 동부권발전사업 16개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책임지겠습니다”

### 전북의료기사이연학회 발대식 개최... 의료봉사·소외계층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 예고

전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사 단체의 발대식이 열려 기대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전주 웨딩팰리스에서 전북도의료기사이연학회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강영석 전라북도보건의료과장, 전북도의회의장 및 도의원,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주시갑) 등 전북도내 주요 인사들이 외빈으로 참석해 발대식을 축하해 주었다.

전북도의료기사이연학회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8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회로 전북도에 1만 1천여 명의 회원들이 보건의료인력의 핵심으로 각 분야에서 도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전라북도의료기사이연학회 초대 회장인 이형섭 회장(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전라북도회장)은 대회사에서 "전라북도의료기사이연학회는 올해 6월 25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지난 10월까지 매일 1회 의료기사단체 회장단 모임을 가졌고, 지난달에는 각 단체 임원 1명과 동석하여 발대식을 기획하는 등 여러 차례 준비한 끝에 오늘 전라북도의료기사이연학회 발대식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전라북도의료기사이연학회는 그간,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 및 사업체 등에서 사명을 다해 일함과 동시에 체육행사/소외계층/장애인 등 다방면의 봉사활동,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참여, 전라북도 의료공공성강화 활동으로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예비병원 건립 확장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함께 하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최근 전주 웨딩팰리스에서 전북도의료기사이연학회 발대식이 개최됐다.

말하며,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회원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아직도 열악한 근무환경,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 연봉 체계, 퇴직금/연차 문제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마저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5일 서울에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주최로 개최한 '불러라 보건의료기사의 바람' 2019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행사를 통해 이러한 전국 43만 의료기사의 입장과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역할이 갈수록 대두되는 시기에 의료기사의 처우 개선은 곧 국민의 건강권 확대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만간 도지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전라북도의료기사이연학회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역할과 보건의료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전라북도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제언을 했다.

한편 전라북도지사(대행 강영석 전립 확장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함께 하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있는 의료기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며 전북도의료기사이연학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아직도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많은 도민들이 있는데, 전북도와 전북도의료기사이연학회가 중지를 모아 열악한 환경속에서 희망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데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연합회가 기획하는 사업에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송성환 전라북도회의장, 김광수 국회의원,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내빈 대표로는 김양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전라북도의료기사이연학회는 앞으로 내년부터 분기별로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의료박람회, 의료봉사, 소외계층기부, 환경정화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 하는 의료기사단체가 될 것이며, 전북도에서도 보건의료인력의 핵심인 의료기사단체 회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차별화된 복고풍 감성 트렌드로 고객 사로잡아

### 도·생진원, 서울디지털쇼서 3억 1천만원의 계약성과 올려

전북도와 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서울 디지털쇼에서 최근 트렌드를 기미한 '미혼남이 상회', '전북생물고등학교 등 복고풍 컨셉을 접목한 전북 공동관을 운영하고, 도내 농식품 기업 16개사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도와, 3억 1천만원의 계약성과와 약 11억원의 상담실적을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금번 행사에서 전북도와 생진원은 참가기업 단상위에서 벗어나 '70~80년대 추억의 학교'를 모델로 반장 선거 날, 학교 주간식단, 관계자 교복착용' 등 최근 유행하는 뉴트로(새로운 복고경향)트렌드를 접목하여, 참가사 사전 컨설팅, 복고풍 제품개선, 비즈니스 마인드 개선 컨설팅, 홍보이벤트, 인스타·SNS와 연계 홍보 등 차별화된 판로개척 마케팅으로 기업 변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기업의 제품 패키지를 뉴트로 버전으로 리뉴얼하여 변화를 선보였다. 더웬은협동조합의 생차차 제품 '오른들의 아메리카노', 식도라루드 수산물



전북도와 생물산업진흥원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서울디지털쇼에서 도내 농식품 기업 16개사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도왔다.

공품 '참!잘했어요 힘내세우, 너주려고'였다. 아빠가, 지리산처럼의 생들기를 '참지름, 들지름', 이고장식품의 액상차 '7080들이 빛나는 밤에 꿀향', 라디스관 두부제품 '이집 두부 잘하네', 디자인 농부의 곡물선식 '이장남네 서태가루, 블링블링 팔가루', 그린팝푸드의 '말죽거리 떡갈비' 등 재미있고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도내 식품기업의 제품들이 참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현장에 방문한 국내외 바이어들과 열띤 상담상담도 진행했다.

또한, 국내외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사에서도 차별화된 전북관의 특관행사 유지관련 요청해도가 많았다.

전북관에 찾아온 대형백화점 MD바이어는 "기존 지역 특산물전과의 뚜렷한 차별성이 있어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진원 판로개척 행사에 처음 참가한 한 기업대표는 "복고풍 테마로 운영된 전북 공동관에 참가 후 고객니즈를 알게 되었고 향후 제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며 "후후 이런 차별화된 판로개척 행사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생진원은 전북도와 함께 제품은 우수하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농식품기업의 애로 해결과 금번 전시회와 같이 신시장 진출을 위해 꾸준히 성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판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유망한 품목발굴과 시장개척을 통해 영세한 농식품기업의 유통거점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문상기자

# 전북도, 탄소응용제품 민간보급 시범사업 추진

전북도는 올해 처음 추진한 탄소응용제품 민간보급 시범 지원사업이 에너지 절감효과를 물론 복지 및 의료시설 등에 탄소제품이 보급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5일 밝혔다.

탄소응용제품 민간보급 지원사업은 우수한 탄소기술을 접목시켜 만든 실생활 탄소응용제품의 판로확대 및 도민들의 탄소융복합산업에 대한 인지도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발굴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4월), 공청회(5월) 등을 거쳤으며, 도내 탄소기업 대상 사업 희망도 조사를 통해 18개사중 15개사(83%)에서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탄소소재 적용 실생활 탄소응용제품(35종)을 민간시설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정은 공급기업(도내 탄소기업)과 수요처(민간시설)간 컨소시엄 구성후 주관기관에 공모하여 선정위원회(5인 구성) 평가를 통해 선정, 실생활 탄소응용제품 보급 설치여부 만족도 등 조사를 통해 공급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탄소섬유 발열케

이블을 이용한 에너지 저감형 스마트팜 온실난방시스템을 사업화한 (주)씨이에스, 안정성 및 에너지 저감을 위한 원격 예선 탄소난방제품을 생산하는 (주)네이스트 등 4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했다. 선정된 4개사 중 (주)씨이에스와 (주)네이스트는 지난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했고, (주)본에트 등 2개사는 현재 보급을 진행하고 있어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임노옥 도 탄소융복합과장은 "탄소응용제품 민간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탄소융복합산업의 우수성 홍보 및 시장진출에 도움이 되었고, 참여기업의 폭발적인 관심은 물론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예산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19-1472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정읍시 진흥-오주선(군도13호)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9년 12월 ~ 2020년 12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도로구역) 위치	사업내용 및 면적	사업시행처의 명칭(성명) 및 주소
도로사업 / 진흥-오주선(군도13호) 도로확포장공사	전북 정읍시 감곡면 송방리 ~ 감곡면 오주리	○연장 : 0.636km ○폭원 : 8.0m ○면적 : 8,245㎡	정읍시청 / 정읍시 송정로 234 (우성동 440-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진흥-오주선(군도13호)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열람장소, 열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진흥-오주선(군도13호) 도로확포장공사	정읍시청 건설과 / 정읍시 감곡면사무소	2019. 11. 26. ~ 2019. 12. 10. (15일간)

※ 사업기간의 위치도 및 관련 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기간 중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9. 11. 26. ~ 2019. 12. 10.(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건설과 ☎063-539-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정읍시장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